

강화군, 산림규모 7,102억원 편성



강화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7,102억 원으로 편성

강화군(군수 유천호) 산림규모가 7천억 원을 넘긴 것은 강화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존 대비 604억 원이 증액된 7,102억 원으로 편성해 강화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해 온 유천호 군수의 발로 뛰는 행정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강화군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의결된다.

추경예산(안)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사업이 대폭 담겼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20억 원 ▲길상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21억5천만 원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20억 원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8억 원 등이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 및 군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

유천호 군수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8기의 공약 추진사업과 군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현안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며 “물가상승과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폭염 대비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하절기 폭염에 대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군 보건소는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대응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건강관리 내용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폭염 시 가까운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이용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낮 11시~5시 사이 활동량 줄이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알코올, 카페인 음료 자제 및 적정 수분 유지 등이 있다.

방문건강전문인력 30명이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방문과 일일 안부전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더위 적응력이 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에게 부채와 쿨스카프, 물티슈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폭염대비 건강관리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하루 중 무더운 시간에는 활동량을 줄이거나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낮 시간 활동 중



폭염 대비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즉시 119로 연락해 응급처치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

강화군 행복센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즐기는 힐링 명소로 '우뚝'



행복센터_내부활동(문화강좌)



행복센터_이태리요리특강

주민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화군 행복센터'는 강화읍 남산리 213-2번지에 2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8,968㎡,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한 군 최대 시설이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수도권과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애 주기별 모든 계층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강화군행복센터'를 지난 3월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행복센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카페 및 푸드 스토어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어르신 맞춤형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다양한 문화토론과 교육이 가득한 문화프로그램실 등이 조성됐다.

지난 4월에는 41개 문화프로그램을 개강해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한식, 제과, 제빵, 커피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과정을 비롯해 어학, 미술, 공예, 악기, 요가 등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으며, 오는 22일 종강을 앞두고 5백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열기를 더하고 있다.

센터는 일반 문화강좌뿐만 아니라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와 연계한 요리 명장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메뉴개발, 조리과정 개선, 마케팅 기법 등을 교육해 관내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와 함께 여가·문화프로그램이 창업과 창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개강한 '이태리 요리 특강'이 호응을 얻고 있다. 요리 전문학교인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의 셰프 김청일 강사(웨스틴 조선 호텔,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근무)가 강의를 맡아,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9가지 이태리 가정식(부르스케타, 카프레제, 스파게티 마레, 까넬로니, 봉골레, 파파델레 볼로네제 등)을 직접 요리하며 노하우를 전수했다.

군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부모와 함께 하는 방학 특강과 전등사와 연계한 사찰음식 배우기 등 특강을 기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행복센터-전경

Photo NEWS

현장행정



사회복지과_수준높은 보육서비스



강화군 보건소_찾아가는 구강버스



강화군의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최

| 15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 |



강화군의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최

강화군의의회는 지난 18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8월 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주요 일정은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

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강화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26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8월 1일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며 1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9대 강화군의의회,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참

| 생명 나눔 실천 강화군의의회 의원 7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



강화군의의회 장기기증 희망등록

제9대 강화군의의회가 지난 18일 제280회 임시회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며 한층 더 의미 있는 출발을 시작했다.

사랑의 장기기증본부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강화군의의회 의원들이 동참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모범

적인 모습이 강화군 전체에 전파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승한 의장은 “이번 캠페인에 제9대 강화군의의회 의원 7명이 전원 동참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돼 보다 많은 분들이 생명 나눔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강화읍 중심부 첫 경기장, 군민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증진 기대

| 강화군, 강화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준공 |

지난 21일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강화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장기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기찬 지회장은 축사에서 “강화읍 중심부에 이렇게 훌륭한 경기장이 조성되어 정말 기쁘다. 강화군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화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은 강화읍 중심부에 처음으로 조성된 경기장이다. 특히,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과 인접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이트볼은 경기규칙이 어렵지 않고 신체적으로도 무리가 없으며, 여럿이 어울릴 수 있어 노년층 여가 활동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다.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준공식

유천호 군수는 “그간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어려워 답답하셨을 텐데, 이제 이곳에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주민 간 화합은 물론 건강도 챙기실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정체육시설 어린이물놀이장 안전 및 위생 상태 점검



신정물놀이시설 현장확인

유천호 강화군수는 지난 14일 많은 이용객들이 찾고 있는 신정체육시설 물놀이장 현장점검에 나섰다.

‘신정체육시설 어린이 물놀이장’은 안전과 위생에 초점을 맞춰 최첨단 여과시설을 갖추고 친환경 인증을 획득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물놀이장은 4,183㎡(1,265평) 규모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유아풀장, 세족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수심 0.3m)에 조합놀이대, 워터터널, 워터드롭, 버섯폭포, 바닥분수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풀장(수심 0.6m), 세족장, 접이형그늘막, 샤워시설 등의 이용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역 주민 외에도 김포, 고양, 인천 등 수도권 각지에서 방문하며 평균 이용객 수가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신정체육시설은 공원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로 힐링할 수 있는 곳”이라며 “신이용객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는 신정체육시설 내 물놀이장을 비롯해 산책로, 야구장, 체육관 등을 둘러보고, 안전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 실태 등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 - 최백하 기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간담회 개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등 논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2일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용우)와 간담회를 가졌다.

유천호 군수는 간담회에 앞서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등 취약가구를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살피고 있는 협의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22년도 마을 특화사업 추진 계획 및 위기가구 발굴과 대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용우 위원장은 “군민 스스로 마을의 욕구와 사회복지 문제를 진단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복지실천 계획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들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며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사업 등으로 협의체가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전세비용 마련, 힘드시죠?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강화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지원금액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최대 100만 원 - 19세 미만 자녀 1인당 10만 원 가산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주민등록지와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강화군인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강화군 소재인 전용면적 84㎡(34평) 이하 임차 주택 - 주택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 (신용대출 제외) - 세대구성원(부부, 자녀)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사회복지과 가족보육팀 930-3589

조피볼락 치어 55만 마리 방류 실시

지역 어업인들의 또 다른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



조피볼락 치어 방류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일 고부가가치 품종인 조피볼락 치어 55만 마리를 주문도 남단해역에 방류했다.

군은 올해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해 지난 4월 점농어 치어 2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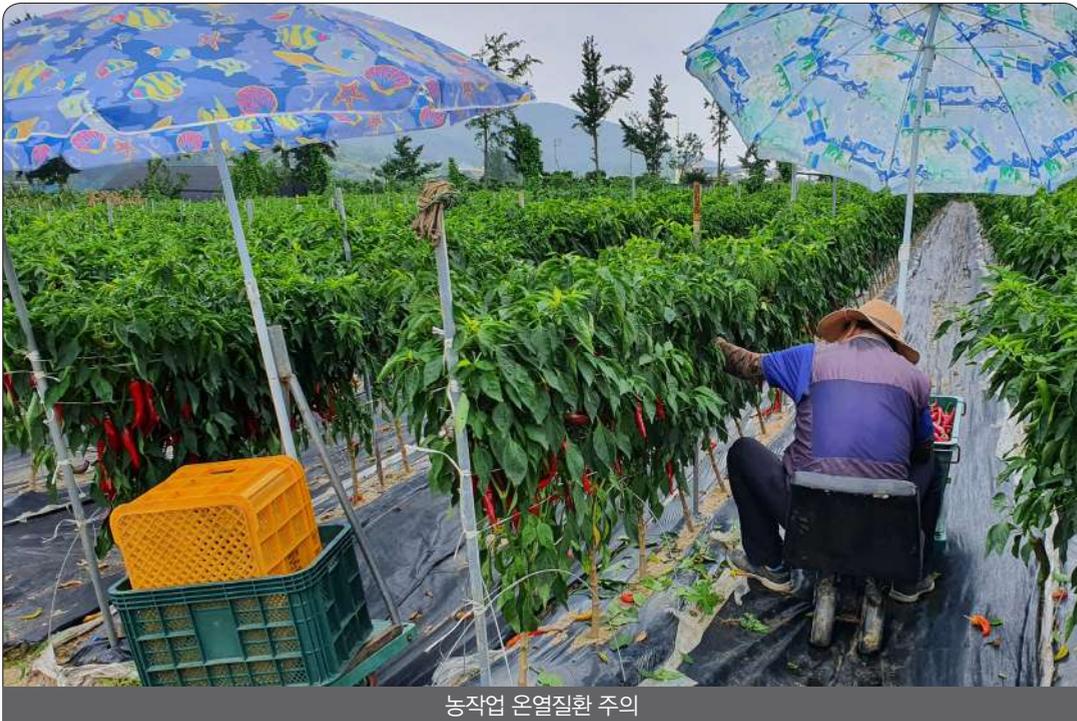
마리, 7월 꽃게 치어 83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이번 조피볼락 치어 방류를 마지막으로 총 163만 마리의 수산종을 방류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조피볼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횡감생선으로, 육질이 담백하고 쫄깃해 활어회 뿐 아니라 매운탕으로도 인기가 높아 지역 어업인들의 또 다른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치어 방류 후에도 주변 어업인들에게 종자 방류 효과와 어족자원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피볼락 치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특정 어구 사용제한과 불법어업 근절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종자방류로 풍요로운 바다 가꾸기와 수산자원 관리에 앞장서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최벽하기자

폭염 속 농작업 시 온열질환 주의 및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칙 준수



농작업 온열질환 주의

각 대처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이 함께 움직여 수시로 동료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15분 이상 휴식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좋고,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탄산음료, 커피, 녹차 등) 대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 시 야외활동과 무리한 작업을 자제하고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 ~ 오후 5시에는 가능한 작업을 중단하고, 몸에 이상을 느끼면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원한 장소로 신속하게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해준 뒤 선풍기, 열린 물병 등을 이용해 체온을 식혀줘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만 물이나 이온 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다면 119구조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유천호 군수는 “올해 7~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낮 동안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여름철 농작업 시 꼭 지켜야 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온열질환이란 무더운 여름철 논, 밭 등 그늘이 없는 곳에서 오랜 시간 일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으며,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예방수칙으로는 모자와 그늘막을 활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세요! |



안전총괄과_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제312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동막해변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강화군, 강화경찰서, 강화소방서, 인천해양경찰서, 동막리마을회, 자율방재단, 화도 의용소방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물놀이 안전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배치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등을 집중홍보 했다. 폭염 대응 행동요령, 군민안전보험 안내문, 중대재해처벌법령 안내문 등도 함께 배포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1년)간 6~8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기간 중 총 14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휴가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사고가 집중 발생했으며, 사망원인별로는 수영미숙 46명(31%)으로 가장 많고 안전부주의 43명(29%)와 음주수영 25명(17%)이 뒤따랐다.

유천호 군수는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물놀이 전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수칙 홍보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체계 종합점검

| 22일,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체계 구축 관련 종합 보고회 개최 |
| “신종 변이 등 선제적 대비 위한 현장 중심 방역 대응체계 강화” 당부 |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인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종합보고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급증하며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반을 다시금 점검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는 2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지속가능한 코로나 19 방역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대본 운영 종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 지대본 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미크론 BA5 등 신종 변이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8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 재유행의 정점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현장 중심 방역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종합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

지대본 회의에는 16개반 실·국장, 10개 군·구 단체장 외에 감염병 전문가인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참석했고, 실·국 및 군·구별 방역대응 추진사항과 재유행 대비 대책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참석자간 대책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방역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재유행에 안정적인 모습으로 대응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최근 코로나 19가 재확산 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강조하면서 “현장중심의 기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다각적인 조치 방안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대책을 발표 한데 이어, 인천시도 이에 맞춰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한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강화 ▲가정 내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50세 이상 4차 접종 대상자들은 조속히 접종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 - 송기훈 기자

가뭄에 대비하세요

관정·관수시설 지원

발작물 상시 농업용수 공급

관정개발	관수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밭을 1,65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강화군민 지원규모 236공 (소형관정) 지원내용 최대 150만 원 (관정개발비의 60%)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관수시설이 없고 밭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강화군민 지원규모 40농가 지원내용 최대 120만 원 (관수시설 구입비의 60%)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정과 농업지원팀 930-3386

2022 강화군

벼 병해충 적기 방제하세요

방제시기 안내

구분	본논 중기 (6월 하순~8월 상순)	본논 후기 (8월 중순~수확기)
병	잎집무늬마름병, 잎도열병, 흰잎마름병, 이삭도열병(조생종)	이삭도열병, 이삭마름병, 이삭누룩병, 흰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충	벼멸구, 흰등멸구, 애멸구, 흑명나방, 노린재류, 이화명나방	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노린재류, 이화명나방

* 해당 작물의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함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32) 930-4150

2022년 2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실시 구직단념 청년들의 작은 도전



일자리경제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수업

시는 올해 총 구직단념청년 125명을 참여자로 선정·지원하며, 신청은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 DB상 취업이력과 고용노동부의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 청년,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경력단절 기혼청년 등 다양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1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박○○씨는 “한동안 취업에 계속 실패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교육에서 진심어린 상담과 비슷한 처지의 참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고, 작은 도전이었지만 사회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참여자들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포시와 사우청년지원센터에서는 26명의 구직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취업지원을 위한 ‘2022년 2기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김포시 내의 상대적으로 활력이 부족한 구직 단념 청년에게 1대1 맞춤형 상담 및 교육, 기본건강검진, AI면접체험서비스 등 짧은 기간에 성취감을 제고할 수 있는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수 시 20만 원의 도전응원금 지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준다.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자신감을 잃고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송기훈 기자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 체납차량 315대 단속하고 1억 2천만원 징수

| 납세자 편의 위해 세무서와 합동신고 방안 마련 |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는 8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



징수와번호판영치 사진

김포시 징수와 체납징수 기동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 315대를 단속하고, 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관내 모든 지역을 순회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2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납세여력을 고려하여 즉시 영치, 영치예고를 병행추진했으며, 그 결과 영치예고한 117대의 체납액 징수율이 73.9%를 기록하는 등 맞춤형 단속의 상당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체납징수 기동대 영치담당 정민규 주무관은 민원인의 “차량에 부착한 영치증의 식별이 어렵고 분실이 된다.”, “등록번호판을 반환받고자 시청을 방문할 때 차량운행을 할수 없어 불편하다.”는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영치증 식별봉투를 제작하고, 영치차량 임시운행증 발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되면 전국 어디서든 영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께서는 여름휴가철 차량정비와 더불어 체납액 납부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김포시 ARS ☎1644-0704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민족의 영산 마니산과 참성단

동녘땅 수천리 전체를 둘러서 강도(江都)가 보장지중지(保障之重地)가 되고, 강도 수백리 전체를 둘러서 마니가 으뜸가는 명산이라. 산 서쪽 제일 높은 곳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드니 이른바 참성단이라... (출처 : 『문헌비고』)



민족의 영산 마니산은 해발고도 472.1m로 산의 정상에서 남쪽의 한라산과 북쪽의 백두산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마니산의 원래의 이름은 우두머리라는 뜻의 두악(頭嶽)으로 마리산(摩利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마리』는 머리를 뜻하며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땅의 머리를 의미하며, 전 민족·전 국토의 머리구실을 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것이 마니산이 민족의 영산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다.

마니산은 본래 고가도(古加島)라는 섬으로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는데, 강화도의 가릉포(嘉陵浦)와 고가도의 선두포(船頭浦)를 독으로 연결하면서 강화도와 한 섬이 되었다고 한다.

마니산의 정상에는 단군이 하늘에 제를 지내기 위해 설치하였다는 높이 6m의 민족 제1의 성적(聖蹟) 참성단이 있다. 축조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000년이 넘는 유물로 추정하고 있다.

참성단에 관한 기록은 고려 때의 문헌 여러 곳에서 이미 나타난다. 고려 후기에 이암(李崐)이 엮었다는 단군조선의 연대기인 『단군세기(檀君世紀)』에는 “...이 분이 단군이다. ...제천단을 쌓고, 삼랑성(三郎城)을 쌓으시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학자 이종휘(李種徽)의 시문집인 『수산집(修山集)』의 「동사(東史)」에는 “제천단은 강화도 마니산에 있으니, 단군이 혈구(穴口)의 바다와 마니산 언덕에 성을 둘러서 쌓고 단을 만들어서 제천단이라 이름하였다. 단은 높이가 17척인데 돌로 쌓아 위는 네모나고 아래는 둥글다. 위의 네모는 각 변이 6자 6치요 아래는 둘레가 60자이다. 후자에 의하면 마니는 강과 바다의 모퉁이라, 땅이 따로 동떨어지고 깨끗하며 고요하여 신명(神明)의 집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관광] 마니산 치유의 숲 참성단 모형

고려·조선시대에도 참성단에서 하늘에 제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수천 년 동안 참성단을 수축한 흔적이 있으며, 고려 원종 11(1270년)에 보수한 기록과 인조 17(1639년), 숙종 26(1700년)에 수축한 기록이 남아있다.

2009년 9월 16일 천연기념물 제502호로 지정된 참성단 내 소사나무는 수령이 150년이 되고, 높이 4.8m, 줄기둘레 약 2.74m로 풍채 좋게 참성단을 지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사나무로 꼽히고 있다.

정수사(淨水寺)는 신라 선덕여왕 때 개산(開山)한 고찰로 마니산 동봉(東峰) 중봉에 자리잡고 있다. 또 마니산 서남사면에 위치한 북일장(北一場)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종마목장 중 한 곳이었다.

특히 마니산은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어 주변 해안에 진보나 돈대 유적이 많다. 마니산의 서북단에는 숙종 때 만들어진 장곶보(長串堡)가 있고, 서쪽으로부터 검암돈대·미루돈대·동막돈대·분오리돈대·칠오지돈대 등이 있다.

현재 마니산은 성역(聖域)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1953년 이후 전국 체육대회의 성화가 채화(採火)되고, 해마다 개천절에는 개천대제가 성대히 거행되고 있다.

현재 마니산은 강화군(유천호 군수)의 마니산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수도권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힐링을 테마로 안정된 기분 상태에서 숲의 치유효과를 높이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중이다.

숲 길을 따라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들꽃과 교감하고 건강을 돌보며, 마니산에 얽힌 단군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중간 중간에는 ‘참성단 조형물’, ‘천부인 광장’, ‘단군 놀이터’ 등이 조성돼 있다.

내친김에 숲에서 이어진 참성단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918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노라면 넓은 들녘 너머 서해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한겨레 얼 체험관’에서는 단군 신화의 의미와 흥인인간의 정신을 이어온 한반도 개국의 역사와 함께한 강화도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

사진제공 : 강화군청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관광] 치유의 숲 이동다리

기고

칠월



고수진
강화향교 장의

이 빗줄기 험난한
먼 네 발자국
길이 될 게다

구름과 비 태양을 잡아먹고
말갱게 바람 되어 올 게다

새파란 이마 깊이
허기진 냇 알알이 터질 게다

기다려라, 검푸른 파도에서 돌아온 시간
가슴을 가르는 외로움까지 따갑게
따갑게 풀어놓을 게다

여름날 짙막한 떨림으로,

청포도(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파도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후략-

7월은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인가 봅니다. 이육사 선생의 고향은 안동입니다. 안동에서도 청포도가 주저리주저리 익어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의 전설은 무엇일까요! 우리 강화도에서도 검포도가 까맣게 익어가는 중일 겁니다. 강화도에서는 전설이 아닌 민중의 역사가 알알이 익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단군의 역사와 최근세 강화도조약에 이르기까지 숭한 역사의 일화들이 숨 쉬고 있으니 말입니다. 민중의 비명소리가 醇厚순후되어 강화도 농수산물의 향과 맛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월은 한해의 중심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허리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가 빈약한 사람은 용쓰지 못합니다. 허리의 힘이 좋아야 모든 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7월은 한해 가장 핵심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7월은 고약한 장마와 태풍 그리고 무더위가 기승하는 시기입니다. 일테면 농사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야만 풍요의 가을을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7월의 장마와 태풍이 찢기고 부러지고, 무더위를 견디지 못해 썩거나 낙과하면 빈곤의 가을을 맛을 수밖에 없겠지요.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7월 포도의 작황이 이렇다면 아무래도 가을 추석 과일로서 제 몫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강화도의 포도는 맛과 향에서 특별합니다. 물론 농부의 노력 여하에 따른 것이지요. 하지만 토양과 기후 조건도 한 몫 한다고 봅니다. 나들길을 안내하던 시절에 포도밭 길을 걷게 되면 포도가 가뭏가뭏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색깔이 신기합니다. 향

기는 단맛을 풍기지요. 배고파 지치고 목마를 땀 자연 침이 돌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故事고사의 望梅解渴망매해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지인들에게 강화도 포도를 소개해왔습니다. 지인들은 강화도 포도 맛에 화들짝 놀라 8월이 들어서고 가을이 가까워지면 전화를 합니다. 강화도의 포도 익는 시기를 묻는 겁니다. 온수우체국 집배원 근무 당시에는 포도밭 어른들이 오토바이를 멈추게 해서 포도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근무를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포도를



서너 상자를 사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행 회원들에게 마리산, 고려산, 해명산을 이끌어주고는 돌아갈 때 초지리 길가에서 포도 몇 상자를 버스에 실어주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전화통이 붙이 냈었습니다. “이런 포도 처음 먹어 본다.”는 異口同聲이구동성 극찬이었습니다. 어깨에 바람이 들어 으쓱으쓱 그런 날은 신이 나서 잠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사람의 인격 성숙도와 같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참다운 사람 냄새를 풍기지 못하겠지요. 곧 노년이 닥치고 노년의 삶이 더더욱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論語논어 한 구절을 인용해봅니다

子曰, “苗而不秀者有矣夫(묘이불수자유의부).

秀而不實者有矣夫(수이부실자유의부)”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싹이 나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 꽃은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 이는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꽃벼 자랑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아이 총명하다고 선불리 예단치 말라는 경고와 같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이치는 같습니다. “利涉大川이섭대천”입니다. ‘큰 내를 건너야 이롭다’는 뜻입니다. 큰 고생을 해 봐야 사람의 장래가 희망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올곧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의지로만은 불가능합니다. 농부의 일손이 끝까지 농작물을 관리할 때 농작물의 풍요가 약속됩니다. 싹은 트지만 꽃피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꽃을 피우고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까요. 우선은 자기 책임이겠지요. 하지만 주변인의 관심과 사랑도 필수일 겁니다. 끝까지 은근과 끈기로 고난을 이겨내면 맛 향이 진득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포도의 검은빛 향기가 풍겨오는 듯합니다. ㉠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 사랑의 밥차

“어르신 식사하세요!” 도시락 배달

강화군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는 지난 14일 관내 어르신들께 한우 도가니탕 도시락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 봉사를 펼쳤다.

이번 도시락은 초복을 맞아 보양식인 한우도가니탕과 밀반찬으로 구성됐으며,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재료 손질부터 포장까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 200인분을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는 지난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했으며, 이번 행사로 상반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송수익 교장은 하반기에도 푸드트럭을 이용해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는 음식으로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나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참·살·이 더운 날씨에 더욱 기승하는 살모넬라균감염증

더운 날씨에 더욱 기승하는 세균의 적색 경보!

살모넬라균감염증

바로알기!



질병관리청은 살모넬라균 감염증 신고 환자 수가 총 10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살모넬라균감염증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non-typhoidal Salmonella)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이다. 여름철에 높은 온도와 습도에 의해 세균증식이 활발해 지면서 감염증 발생이 증가한다.

이 감염증은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껍질이 손상된 달걀, 오염된 육류 섭취 시 감염될 수 있다.

주로 균 감염 후 6~72시간(대부분 12~36시간)의 잠복기 후 경련성 복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두통의 증상이 발생되며 탈수증상이 생길 수 있다. 드물게 소변, 혈액, 뼈, 관절, 중추신경계로의 침습적 살모넬라균감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며 대부분 5~7일 후에 회복이 가능하며, 회복기에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섭취가 필요하다. 심한 병증과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영아나 65세 이상의 면역저하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올바른 손씻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날음식을 피하고, 달걀 및 가금류를 비롯한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완전히 익혀 먹으며,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 개인위생 관리와 올바른 음식 섭취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권주형 기자

Photo NEWS 내고향을 훈훈하게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강화군노인복지회, 행복한 어르신 공동 밥상 사업



양사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재무과_경찰과 합동 음주·체납차량 단속 (2)

G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구직자 및 강화군민 대상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오세요!

취업/자기계발 수강생 모집 아카데미 특강



교육기간 : 일시- 2022. 8. 3. ~ 11.30. 14시~18시 (매주 수요일)

- 모집기간** 2022년 7월 18일 ~ 상시모집
- 모집인원** 매회 당 25명 내외 (회차별로 수강 가능)
- 참여혜택** **실업급여 재취업(구직) 활동 인정**
우수 참가자 기념품 제공, 센터 사업지원 시 가산점
- 접수방법** 전화접수 ☎ 032.934.3088
QR코드 (네이버폼) 
메일 : ganghwajob@naver.com
- 교육장소**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중앙시장 B동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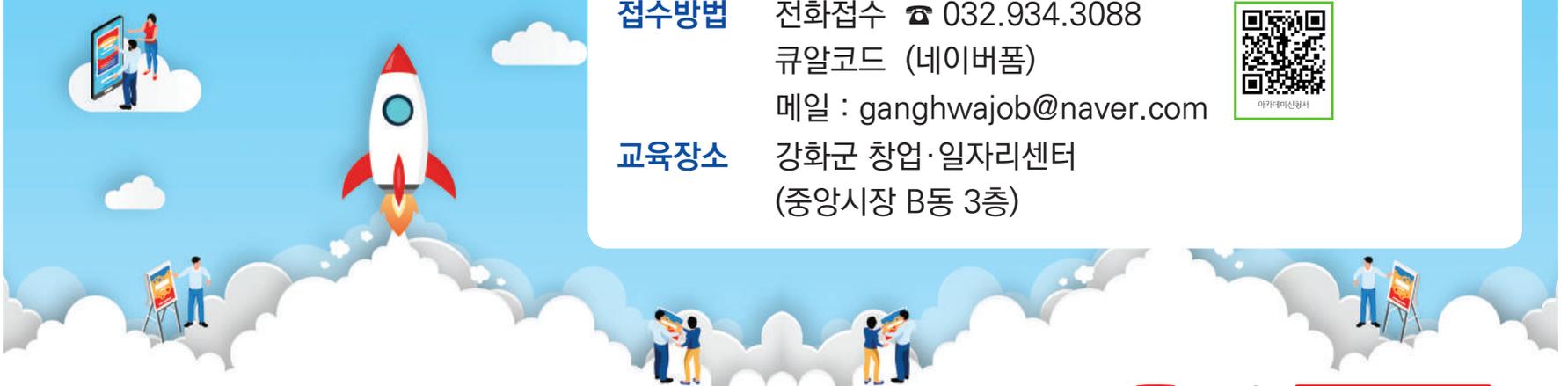
창업/창직 수강생 모집

(예비) 창업자 및 강화군민 대상

아카데미 특강

교육기간 : 일시- 2022. 8. 4. ~ 11.10. 14시~18시 (매주 목요일)

- 모집기간** 2022년 7월 18일 ~ 상시모집
- 모집인원** 매회 당 25명 내외 (회차별로 수강 가능)
- 참여혜택** **실업급여 재취업(구직) 활동 인정**
우수 참가자 기념품 제공, 센터 사업지원 시 가산점
- 접수방법** 전화접수 ☎ 032.934.3088
QR코드 (네이버폼) 
메일 : ganghwajob@naver.com
- 교육장소**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중앙시장 B동 3층)



G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YouTube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라이브방송 동시진행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